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바닷고기의 운명

어느 연구기관의 최근 발표다. 2048년이면 우리도 어업의 종식을 맞이할 것이라...

생의 글에도 시집가서 민어 보러 다니던 동대문시장 풍경이 묘사된다. 새댁이 큰 민어를 사러 시장에 갔다는 건 어느 정도 만만한(?) 생선이 아니었는...

어머니 말씀을 더 전하자면, 서울이나 인천 같은 도시에서는 잔치에 흥어무침을 흔하게 냈다고 한다. 내가 "에이. 설마 가오리겠쥬?" 했더니 아니라신다. 가오리도 흥어도 시장에 흔해서 더 맛있는 흥어로 무침을 썼다는 말씀이다. 광주에서도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네에서는 생충어를 송덩송덩 빼제 썰어서 빨갈게 양념한 뒤 미나리며 고추 등을 넣고 버무려 잔치에 먹었고 요즘도 그리 한다. (물론 어종은 바뀌어서 수입 가오리가 대부분이다.) 술집 안주로도 많이 먹었다고 한다. 내 어린 시절 기억에도 잔치집에서 흥어무침을 본 기억이 많이 난다. 합충생면이 유명한 중구 오장동의 냉면집에서 빨갈게 무친 흥어 없으면 냉면을 맛있게 먹기도 했다. 이 집들도 아직 흥어를 쓰긴 쓰지만 수입산이다. 국내산으로는 값이 비싸서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처음 진짜(?) 흥어를 먹어 본 것은 광주에서였다. 선배 결혼식에 갔다가 무등산 자락에서 열린 피로연장(닭집)에서 만난 흥어가 최초다. 가지런히 포를 떠서 알루미늄 도시락에 담긴 흥어를 둘러져 하객들의 탄성이 이어졌다. "좋은 흥어다." "참 맛있다." 아시다시피 처음 식힌 흥어를 본 이들은 당황하게 마련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힘들었다. 놀라운 사실은, 한두 점씩 먹기 시작하자 금세 혀에 붙어서 그날로 흥어 팬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서울로 돌아가는 완

행열차에서, 혼주가 챙겨 준 흥어 도시락을 안주로 소주를 마셨다. 여담이지만, 주변 승객들의 입맛 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누구도 고약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던 흥어도 이제는 귀물이 되어 버렸다. 비싸기 그지없다. 몇 년 동안 허황이 좋았다는데도 값이 만만치 않다. 90년대처럼 흥어 배가 달랑 한 척이 남고, 그것도 지자체가 보조금을 주어 가며 유지하게 될 만큼 허황이 나빠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바닷속 사정이 점점 흉악해지고 있다는 건 명백하다.

오징어나 고등어도 비슷한 운명의 길을 걸을 게 자명하다. 오징어는 비싸져서 이제 '대중 생선'이란 말을 할 수 없다. 좀 싸다 싶은 건 먼바다에서 작업해 오는 놈들이다. 고등어도 먼바다에 나가서 고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올해 한동안 산오징어가 산지에서 1.2마리에 1만 원이나 했다. 맛있는 마른오징어 큰 놈은 한 마리에 이미 1만 원이다.

너무 흔해서 좌판에 깔아 놓고 대충 양푼에 담아 팔았다는 사월 주꾸미도 소고기 등심 값이다. 오월이면 대목을 맛을 쫓게도 올해 역시 어마어마한 값을 보일 게 뻔하다. 살 만해져서 너무 먹으니 문제고, 그계 돈이 되니 무리해서 많이 잡으려 하니 그것도 걱정이자. 우리가 매일 바다로 미세 플라스틱이 오염물을 내보내고 있는 것도 참담한 일이다. 바다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다음 대에도 우리가 흔한 생선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음식 칼럼리스트>

의료칼럼

코로나 백신을 맞읍시다



정우빈 광주 광산구의회 공보이사 송성 성심정형외과의원 원장

을 보호하기 위해, 내 가족과 이웃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안에 갇혀 지내며 삶을 영위해 왔다. 하지만 새봄을 맞아 우리는 다시 가족 친지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고, 동료들과 퇴근 후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예전의 일상을 꿈꾸는 중이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열차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건 당국은 집단 면역 혹은 무리 면역(Herd immunity)을 통해 60-70% 이상의 면역률을 얻을 때 마스크를 벗고 지내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생산 지수(1.4~3.3 추정)를 근거로 한 것이다. 집단 면적이 생성되면 바이러스 감염이 퍼지는 통로가 막히며, 이는 우리를 지켜 주는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예방 접종을 실시,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기회를 막아 집단 면역률을 높이는 것이다.

누군가는 새로 개발된 백신에 대한 두려움에, 혹은 누군가는 미답지가 남아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집단 면역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 및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인 것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맞을 때 발생한 수 있는 부작용들

은 발열·근육통·오한·두통·피로감 등의 비교적 가벼운 증상들과 아나필락시스·경련·혈전증·사망 등의 중증 의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마냥 두려움에만 떨고 있을 수는 없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열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이에 올라타야만 한다. '지피지기 백전백태'(知彼知己百戰百勝: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처럼, 부작용들에 대한 대처 방법들 역시 접종 의료진들에 대한 의무 교육, 119 이송 체계 강화, 피해 보상에 대한 행정 체계의 강화 등을 통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필자가 속한 광산구 의사회는 광주보훈병원에 마련된 접종 센터에서 많은 구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시행하고,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한 상태이다. 백신 접종 및 부작용에 대한 대응에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는 본인의 병원을 휴진하면서까지 의료 봉사를 자처한 의료진들의 참여 노력으로 얻어진 산물이다.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코로나19. 앞으로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지, 몇 번의 유행이 더 오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승리는 우리 인류의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고,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기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가 성공하려면



이정선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인공지능 기업에서는 인재를 찾기 위해 끝머리를 잃는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전환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관리하는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첫째, '광주형 AI 교육과정'의 수립이다. 향후 추진될 2022년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코딩 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타 교과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2022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교육자치에 대한 요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광주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여러 교육 주체들과 협의해 '광주형 AI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보교육을 활성화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은 인재 육성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수한 정보화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첨단 컴퓨터 과학 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융합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교육정보원과 영재교육원을 이용해 우수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양 및 전문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야 한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이용해 컴퓨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관련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고등학교에서 관련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계 대학의 관련 학과에 진학해 전문적인 공부를 하면서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미래사회 변화와 지역사회 산업생태계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학생·학부모 진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IT회사 신입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등 컴퓨터 관련 전공자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미래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컴퓨터 관련 인재들이 사회를 주도할 것이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 사업을 통해 구축될 각종 AI 관련 사업체를 비롯해 광주글로벌모터스 등은 광주의 산업생태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특히 우리 지역 대학에 확대된 컴퓨터 관련 학과와 2022년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대 등이 지역 학생들의 진로를 폭넓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가능성을 학생·학부모에게 교육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리(Freire, T)는 유망한 산업 분야 중 하나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그러면서 미래의 일자리는 미래 산업에서 창출된다고 했다. 새로운 시대의 촉망받는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겨나야 한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무다. 'AI도 사람이 먼저다.' 우수한 인력이 없으면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는 한낱 구호에 그칠 수 있다. AI 교육을 위한 교육청과 시장의 거버넌스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광주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기대해 본다.

社說

개발이익에만 눈먼 여수 경도 관광단지 사업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컨소시엄(이하 미래에셋)이 당초 계획된 마리나 건립을 백지화하는 대신 최고 29층짜리 타워형 레지던스를 짓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에셋은 지난 3월 경도 해양관광단지 숙박사업 1단계 사업에 대해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여수 국동항과 연결되는 연륙교의 경도 진입부 주변 6만 5000㎡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인 타워형 레지던스 1184실(11개동)을 짓겠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에는 당초 마리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미래에셋은 또 경도초교를 인근으로 이설하고, 해당 부지에 2022년까지 6성급 호텔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당초 투자계획서에 명시된 '런던 아이'와 같은 대관람차도 폐지했고, 돌산-경도를 잇는 케이블카 조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관광단지에 필요한 핵심 관광시설 구축은 외면한 채 개발 이익이

큰 숙박시설 조성에만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마리나 부지에 레지던스 건립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10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경도지구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해 준 탓이다. 이처럼 행정당국이 별다른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안을 변경해 준 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미래에셋이 경도에 투자하는 목적이 결국 부동산 개발 이익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관광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1000억여 원을 들여 연륙교까지 건설해 주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사업자 측은 약속을 현실팽크처럼 내딛고 있다.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 등은 이 사업이 부동산 투기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세계적 수준의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

최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시중에 풀린 유동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유입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와 가상화폐 채굴을 노린 절도 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벌써 246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비트코인 광풍이 불던 지난 2017년의 204만 명을 뛰어넘은 것이다. 거래 금액도 지난 2월 25일까지 445조 원에 이르렀다.

광주·전남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관련 사고로도 입증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그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가상화폐 투자 업체를 차린 뒤, 고수익을 미끼로 수십억 명으로부터 5억7000만 원을 쟁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한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으면서 일부 PC방 업주들까지 '채굴'에 뛰어든다는 바람에 컴퓨터용 그래픽 카드가 품귀를 빚자 광주 북구에서는 모형을 돌며 내 차례에 걸쳐 각실 PC에 설치된 600만 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를 훔친 절도범까지 발생했다. 고성능일수록 채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 고급형 카드의 중고 거래 시세가 두 배 넘게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20-30대 젊은 층이 뛰어들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는 중독성이 강하다는 게 문제다. 실제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직·이혼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주식 투자도 그렇지만 가상 화폐 투자 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無等鼓

스웨덴 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다. 자동차 업체 볼보, 가구 회사 이케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그룹 '아바'. 책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으로 유명한 소설가 요나스 요나손을 꼽을 수도 있겠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지난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 나간 '플로깅'(Plogging)이 눈길을 끈다. '플로깅'은 이삭 등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업프'(Plocka upp)와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다.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화 운동을 의미한다. 달리기 대신 걷기를 할 때는 '워킹'(Walking)과 합성한 '플로킹'(Ploking)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플로깅'의 가장 큰 장점은 환경보호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쓰레기를 줍기 위해 계속 허리를 숙였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30분 동안 288kcal 정도가 소모된다는, 건강에도 좋은 이점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플로깅'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외래어를 대신할 단어를 정하는 국립국어원은 '플로깅'의 대체어로 '쓰담달리기'를 선정했다. '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이지만 '쓰담달리'의 의미도 있다.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행위라는 본뜻 외에 환경을 보듬고 참여자들을 격려하는 느낌도 함께 담을 수 있어 그렇게 정했다고 한다.

얼마 전 KBS 1TV '재난 탈출 생존왕'에서는 로커 박완규가 플로깅을 하며 한 시간 만에 커다란 장바구니를 가득 채울 만큼의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다. 광주시 광산구 첨단 동사무소 등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플로깅을 진행하고 있다.

플로깅을 할 때 준비물은 간단하다. 쓰레기봉투나 가방 그리고 장갑만 있으면 된다. 물론 비닐봉지가 장갑의 경우 일회용은 금물이다. 운동장을 달릴 때, 공원을 산책할 때, 골목길을 걸을 때, 작은 봉투를 들고 '플로깅'이나 '플로킹'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거야말로 지구를 살리는 작은 첫걸음일 터이니.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